

멕시코 치안부재에 따른 문제 심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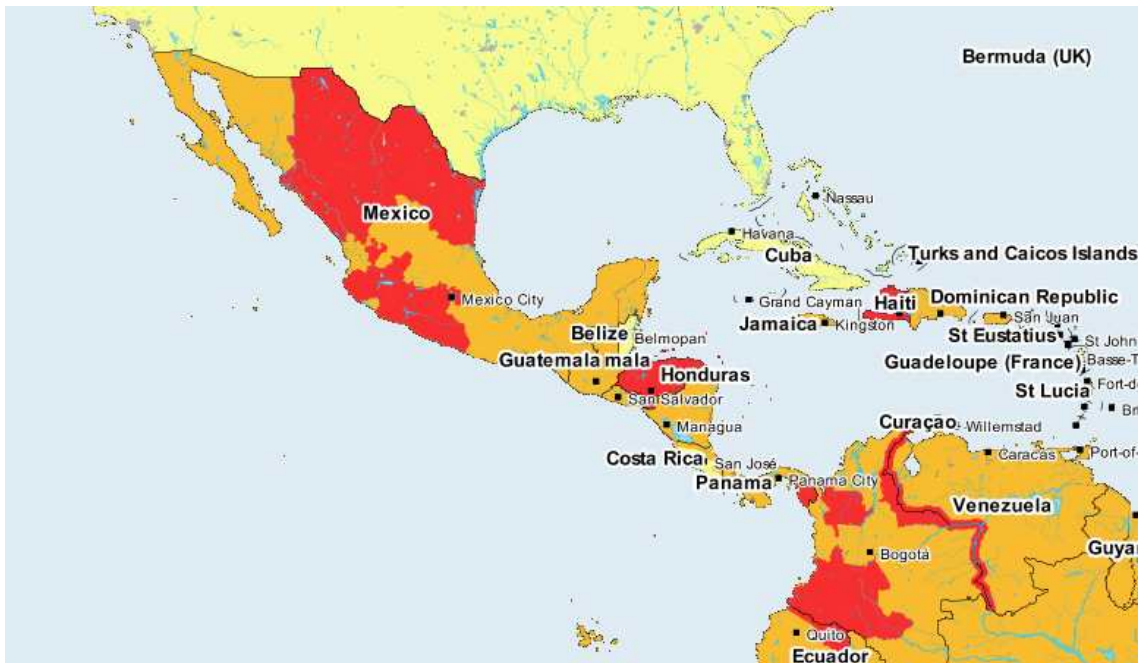
(2014. 1. 21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. 멕시코 치안현황

- 각 국가별 치안현황을 분석·발표하는 Control Risk社 발표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여전히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됨
- 특히, 납치건수 관련 '13년 상반기중 멕시코가 세계 1위를 차지 (약 8천건)
- 이후 인도(2위), 나이지리아(3위), 파키스탄(4위), 베네주엘라(5위) 순임

<그림1> 치안 수준 관련 국가별 분류 결과



자료: Control risk

*범죄발생 위험도수준: 빨강(high), 황토(medium), 노랑(low), 연두(very low)

- 즉, '12 12월 새롭게 출범한 멕시코 페냐 니에또(Pena Nieto) 정부의 확고한 치안확립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

- 과거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다수의 대도시형 범죄가 근래에는 지방 마피아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범죄 형태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임
- 특히, 최근 들어 태평양 연안 미초아칸주(州) 아파친간시(市)에서는 마약카르텔로 인한 범죄피해 지속 및 지방경찰의 부패 만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체 민간무장 경비단(autodefensas)을 구성하는 등 지방치안 관련 국가공권력 신뢰도는 거의 바닥인 상태
- 한편, 연방정부는 미초아칸주 범죄집단과 커넥션이 없다고 생각되는 중앙인사를 동 지역으로 별도 파견하는 등 치안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이고 있으나,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

2. 치안부재로 인한 멕시코 경제에 먹구름

- 멕시코 전국경제인연맹(Coparmex)에 따르면 치안부재로 인한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 규모가 약 연간 57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
 - 주요 피해 사례 : 기업인 납치, 사업장 절도 및 갈취, 폭력조직 앞 보호비 명목의 정기적 상납금 지급 등
- 멕시코 정부의 의욕적인 각종 개혁조치(에너지, 조세, 방송 등) 성공에도 불구하고 '치안부재를 사유'로 현재 여러 외국기업들이 대 멕시코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
 - 실제로 '13. 12월 CFE(멕시코 연방전력청) 발주 대형 복합 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일부 입찰기업은 '치안문제'를 사유로 최종 경쟁입찰 참여 포기